

# 광주시·테크노파크, 1200억 투자... '기업하기 좋은 광주' 조성

### 광주TP서 공공기관 현장대화... 성장 단계별 특화프로젝트 추진 창업기업 실증·홈로봇가전 개발 지원 등 중기 지원책 집중 점검 강 시장 "시·테크노파크는 원팀... 산업 생태계 혁신 앞장" 당부

광주시와 광주테크노파크가 '기업하기 좋은 광주'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1200억을 들여 참여한 지역 중소기업 활성화를 돕고, 창업기업 실증 지원과 홈로봇가전제품 개발 등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해 다양한 상승효과(시너지) 등이 기대된다.

23일 광주시와 광주테크노파크에 따르면 두 기관은 지난 21일 테크노파크 회의실에서 '공공기관 현장대화'를 진행하고, 다양한 동행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대화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한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과 직원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현장 대화에선 두 기관이 합심해 역점 추진 중인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 사업'과 '홈로봇가전 제품개발 전주기 지원 기반구축 사업' 추진 상황 등을 꼼꼼히 살펴봤으며, 특히 1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중소기업 지원책 등을 집중 점검했다.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 사업'은 기업에 제품·서비스의 실적인 '트랙레코드'를 쌓아 판로 개척 및 상용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상용화 직전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창업 7년 이내 기업 대상 제품

·서비스 실생활 실증장소 제공 및 사업화 지원 등이 핵심 사업이다.

광주시와 광주테크노파크는 또 지역 가전업체의 홈로봇가전 특화제품 개발 등을 위해 '홈로봇가전 제품개발 전주기 지원 기반구축 사업'을 진행 중인데, 광주시는 홈로봇가전 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유치, 광주테크노파크는 설계 및 개발지원, 실증 환경 구축 등을 지원한다.

두 기관은 앞으로 3년간 1200여억원을 투입해 지역 중소기업 대상 지역특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성장단계별 컨설팅, 기술사업화 지원, 정책자금, 스마트공장, 수출·마케팅 지원 등을 중소기업 맞춤형 집중 지원에 나선다.

광주시와 호흡을 맞춰 지역 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광주테크노파크는 지역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첨단기술과 인프라를 집적화하는 등 지역산업·경제 거점 기관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왼쪽)이 지난 21일 오후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열린 공공기관 현장대화에 참석해 김영집 원장 등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광주시 제공>

특히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과 혁신사업간 연계 및 조정·전략기획, 지역산업의 기술고도화, 기술창업 촉진 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사업 성과를 냈으며, 지난해 7월 광주과학기술진흥원과의 통합 이후에는 과학기술 혁신 거점기관의 역할도 성실히 수

행하고 있다.

최근엔 광주테크노파크의 투자펀드 지원을 받은 ㈜에스오에스랩이 코스닥에 상장하는 등 지역 중소기업 성장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테크노파크는 그동안 지역

산업 발전과 중소기업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며 "광주시와 광주테크노파크는 원팀으로, 지역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SOC 확충·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지정...전남도, 국비 확보 총력

### 기재부와 예산간담회 등 가져

전남도가 내년도 전남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쏟고 있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기획재정부 예산간담회를 갖고 호남 사회간접자본(SOC) 확충·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지정 등 지역 현안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김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전남은 지역균형발전과 인구소멸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사는 "전국 어느 지역보다 열악한 전남의 도로·철도 환경에 대한 지역 형평성과 균형발전을

고려해 정부는 SOC 계획을 수립,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김지사는 이같은 점에서 준공이 임박한 '호남고속철 2단계', '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 사업의 차질없는 지원과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완도-광주 고속도로 2단계 예타 통과',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등을 건의했다.

광양만권을 중심으로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지정도 건의했다.

김지사는 "이차전지 앵커기업을 포함한 수소·기능성화학 등 86개 첨단소재 기업과 투자유치를 조율 중이나, 기존 산단 분양률이 97%에 달해 입주 희망기업에 산업용지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순천·광양 일원 '미래첨단소재 산업단지'를 국

가산단단지 조성계획에 추가해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전국 물감 생산량의 75%를 차지하는 전남에 국립 물감 산단 진흥원을 건립하고 물류단지도 조성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와관련, "민생안정과 지역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핵심 현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남도는 기재부 정부예산 심의기간(6월~8월 초), 도지사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이 수시로 기재부를 찾아 건의사항을 적극 설명하고 예산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김지은 기자 dok2000@kwangju.co.kr

## 전남도, 지방소멸 위기 대응 현장 목소리 청취

### 정책자문위, 인구청년분과 회의

전남도가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현장 목소리 수렴에 나섰다.

전남도는 지난 21일 화순군 청년센터에서 '2024년 상반기 정책자문위원회'의 인구청년분과 회의를 열고 저출산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

등을 논의했다. 인구청년분과 회의는 지난해 10월 청년, 귀농·귀촌, 외국인 등 각계각층 전문가와 현장 중심의 활동가로 구성된 정책 자문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남의 인구위기 극복시책으로 추진중인 ▲전남형 직장육아지원제도 민간 확산 ▲전남 청년 희망펀드 조성 ▲만원 세컨하우스 '울만한가' 운영 ▲전남 이민·외국인 종향지원센

터 운영 등에 대한 타당성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출산 여건 개선, 공보육 인프라 확충,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 등을 위한 정책 추진도 당부했다. 분과회의의 뒤 위원들은 지역 청년의 소통·교류 공간인 화순군 청년센터 '청춘들락'을 둘러봤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dok2000@kwangju.co.kr

## 모빌리티·AI·로봇...광주 첨단기술 한 곳에

### 광주 미래산업 엑스포 27일 개막 현대차그룹 기술테크쇼 첫 선

광주 대표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보여줄 호남권 최대 산업전시회인 '2024 광주 미래산업 엑스포'가 오는 27일 개막한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미래산업 엑스포는 기존 국제 그린카 전시회와 국제 뿌리산업 전시회, 국제 IoT(사물인터넷) 가전로봇 박람회, 광주 드론·UAM(도심항공교통) 전시회를 통합한 행사로, 오는 29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관광공사와 광주그린카진흥원 등이 공동 주관한다.

광주시는 이번 미래산업엑스포를 미래 모빌리티 관련 전문테크 중심 전시회로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는 의지다.

특히 대한민국 대표 모빌리티 기업인 현대자동차그룹의 기술테크쇼를 만날 수 있는 '현대자동차그룹 테크관'이 올해 첫 선을 보인다.

'테크관'은 물류 모빌리티 로봇(AMR), 제조·물류 융복합 로봇(MPR), 주차로봇 등 현대자동차그룹의 미래 모빌리티 세상을 바탕으로 참가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주관하는 모빌리티산업 전문가 관계망(네트워킹) 행사인 '자산어보'(자동차산업을 어우르고 보듬다의 준말)도 예정돼 있다.

지역 대학의 참여도 눈길을 끈다. 조선대는 규모와 내용 면에서 역대급으로 참여해 산·학·연 융합 전시회를 주도할 예정이다. 산학협력단 내 지능형 로봇혁신융합대학사업단, 우주기술연구소 등 다양한 연구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성과와 사회·상용화가 가능한 미래기술을 선보인다. 전남대학교 등 지역 5개 대학도 공동관을 꾸려 광주미래산업을 견인할 다양한 연구성과를 전시한다.

전시장 내 특별무대에서는 '2024 광주창업페스티벌' 사전 행사로 '스타트업 아우토타 코리아 파트너십 매칭데이'가 열린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인 메르세데스 벤츠사 주관으로 국내 모빌리티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제공된다.

이 밖에도 벤츠, 토요타, 렉서스, 캐딜락, 폭스바겐, 혼다 총 6개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전기자동차(EV)를 만나볼 수 있는 '전기차(EV) 야외특별관'을 비롯한 맥주·튀김 로봇 시연·시식행사, 사출기를 활용한 플라스틱 병뚜껑 재활용(업사이클링) 제작 체험, 로봇을 이용한 유에스비(USB) 레이저 각인 체험 등 다양한 체험행사도 준비된다.

전시회 주관한 광주관광공사 김진강 사장은 "지나해 공사가 출범한 이후 전시회 정체성 확장을 위해 노력했으며, 시민참여형 행사를 대폭 늘리는 엑스포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면서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전시장을 찾아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